



**꽃놀이 어디로 떠나볼까**

전남 장흥 목촌 300년된 140여 동백 만발 거제 지심도 식생 50% 동백...꽃구경 적기 양산 통도사·순천 선암사는 매화꽃이 장관 제주 한림공원 동백·카멜리아힐 매화 절정

아직은 두툼한 외투를 벗기가 살짝 두려운 날씨지만 그래도 한낮에 느끼는 햇살은 하루하루 확연히 달라짐을 느낀다. 다음 주면 3월이다. 꽃 소식 운운하는 것이 결코 과한 호들갑이 아닌 때다. 3월의 꽃잔치는 단연 동백과 매화다. 처연한 붉은 빛의 동백과 흐드러지게 핀 매화군락은 차들처럼 딱딱한 마음에도 절로 시상을 떠오르게 한다. 한국관광공사 3월의 여행 테마로 '남도 꽃잔치'를 정한 것도 그 때문이다.

**●화사한 동백 꽃비 맞으며 갈까(전남 장흥군 용산면 목촌길)**

장흥 용산면 목촌리의 동백림은 수령 250~300년의 고목 140여 그루로 이루어진 숲이다. 툭툭 떨어지는 화사한 동백 꽃비를 맞으려면 3월에 찾는 것이 좋다. 목촌리는 동화농민군이 싸운 장흥전투를 이끈 이방언의 고향이기도 하다. 광활한 동백숲을 보려면 천관산 동백생태숲에 가자. 계곡을 따라 20만㎡에 걸쳐 동백 군락지가 형성되었다. 장흥삼합을 비롯한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은 토요일과 일요일(골자리 2·7일)이 서는 날 열린다(상설시장과 한우판매장, 식당은 매일 영업). 야생차밭, 비자나무 숲길의 보림사, 천문과

학관, 전망대 등 주변 여행지도 많다.(장흥군청 문화관광과 061-860-0224)

**●해안선 수놓은 동백물결, 거제 지심도(경남 거제시 일운면)**

장승포항 남쪽의 지심도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동백 군락지 중 한 곳이다. 지심도의 식생 중 50% 가량이 동백으로 1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 지심도의 동백꽃은 12월 초부터 피기 시작해 4월 하순에 지기 때문에 2월말~3월중순이 꽃구경의 적기다. 해안 절벽이 있는 마골, 포진지를 거쳐 망루까지 돌레길을 걷는 데 2시간 정도 걸린다. 남쪽 우제봉 산책로도 해금강 등 주변 바다 풍경과 어우러져 동백꽃 보는 재미를 더한다.(거제시청 문화관광과 055-639-4172)

**●질은 매화 향에 취하다. 양산 통도사와 김해 건설공고(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외)**

해마다 2월이면 양산 통도사의 홍매화가 핀다. 홍매화는 통도사를 창건한 신라 자장율사의 법명을 따서 '자장매'로도 불린다. 고고하면서 화려한 자태가 매력으로 수령이 350여년에 이른다. 양산시 원동면 일대도 영포마을을 비롯해 쌍포, 내포, 함포, 어영마을 등에 매화밭이 있다. 특히 영포마을의 2만 그루에 달하는 매화나무에 꽃이 만개할 때 모습은 장관이다. 통도사 홍매화가 필 무렵, 김해건설공고에는 와룡매가 핀다. 나무 모양이 용이 꿈틀거리는 것을 닮아 와룡매라 불린다. 매화가 만발할 때면 교정은 꽃구경 나온 사람들과 사진작가로 넘쳐난다. 인근에 수로왕릉, 국립김해박물관 등 가야 역



전남 장흥군 목촌마을 동백꽃



거제 지심도 동백꽃



전남 순천 선암사 매화꽃



제주 동백 수목원 '카멜리아힐'

사 유적도 많다.(양산시청 문화관광과 055-392-3233, 김해시청 관광과 055-330-4445)

**●매화 꽃바다의 장관, 순천 선암사와 순천향 매실마을(전남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외)**

순천 선암사의 매화는 선암대로 불린다. 수백 년의 나이를 자랑하는 매화 고목은 천연기념물 488호. 순천향매실마을은 산자락을 따라 자리한 마을에 하얀 매화꽃이 바다처럼 넓게 퍼진 것이 장관이다. 음력 1월에 피는 납월매로 이름난 금둔사와 낙안읍성 민속마을도 볼거리가 많다.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자연생태공원도 함께 둘러보자.(순천시 관광안내소 1577-2013)

**●가장 빠른 봄소식 느끼고 싶다면, 제주(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함평읍 함림로 외)**

한림공원의 수선화·매화정원에는 60년 생 능수매와 20년 이상 된 백매화, 홍매화, 청매화 등 다양한 매화나무들이 일찌감치 꽃을 피운 수선화와 어울려 봄소식을 전한다. 봄꽃 외에 아열대식물원과 산야초원, 재암수석관, 연못정원, 협재, 쌍용, 황금굴 등도 볼만하다. 노리매에는 매화를 비롯해 수선화, 유채, 하골 등 제주의 봄꽃들이 다양하게 있다. 이곳에서는 제주의 전통 배(테우)를 경험할 수 있다. 동양 최대의 동백 수목원 카멜리아힐은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다양한 동백꽃이 피어 늘 붉은 카멜이 깔린 것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뽐낸다. (한림공원 064-796-0001, 노리매 064-792-8211, 카멜리아힐 064-792-0088)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kobaukid

**“테마형 복합리조트 일자리 창출”**  
문체부, 명품관광 콘텐츠 강화 등 투자설명회

정부가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추진 중인 복합리조트에 대한 투자설명회가 26일 오후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이번 투자설명회는 지난 달 정부가 발표한 제7차 투자촉진 정책에서 1조원 규모의 복합리조트 2개를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복합리조트에 대한 업계와 해외의 관심을 반영하듯 수용인원 400여명의 행사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김종 문체부 2차관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관광산업은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라며 “관광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 급증하는 개별관광객에 대응해 한국의 명품 관광 콘텐츠로 경쟁력 있는 테마형 복합리조트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투자설명회에서 복합리조트 가능 지역을 제주도도 제외된 전국으로 정했다.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 관련법에 따라 제주도지사에게 카지노 허가권이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테마형 복합리조트에는 숙박, 컨벤션, 테마아트랙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쇼핑 등을 공통시설로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선택시설인 레스토랑, 엔터테인먼트, 문화예술, 레저스포츠, 헬스, 의료의 경우 문화예술 시설을 반드시 포함해 최소 2가지 이상 갖추도록 했다.

세부 시설에서 숙박은 5성급 호텔로 객실 1000개 이상을 갖추기를 희망했고, 쇼핑시설도 2만㎡ 이상의 공간을 기대했다. 주요한 관광시설인 테마아트랙션의 경우 비즈니스형은 200억 원 이상, 워터파크는 700억 원 이상으로 갖추기를 권고했다.

가장 관심을 끈 시설인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경우 복합리조트 전체 건축면적에서 카지노 영업장이 차지하는 규모를 5% 이내로 제한했다. 여기에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규제외부 등 법제도 준수와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사회적 안전장치 확보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또 외국인 최대 지분 제한 규정을 폐지해 해외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김재범 전문기자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25일 대학로점 커뮤니티스토어에서 1기 청년 인재로 선발된 16명에 대한 임명식을 갖고 1박2일 동안 유스 리더십 캠프를 진행했다. 사진제공 | 스타벅스

**스타벅스 ‘청년 인재’ 양성 본격화**  
대학로점 커뮤니티스토어 1기 16명 임명식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25일 매장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대학로점 커뮤니티스토어에서 1기 청년 인재로 선발된 16명에 대한 임명식을 진행했다.

3월 대학 진학 예정인 16명의 청년 인재는 2014년 12월부터 스타벅스 매장과 1000여 곳의 고등학교에 안내된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지원해 서류 전형 및 최종 면접을 거쳐 선발됐다. 이들은 경기도 용인시 신세계인재개발원에서 1박2일 동안 비전과 꿈에 대한 명사 특강을 비롯해 경영진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유스 리더십 캠프’에 참가했다. 1기 청년 인재 학생들은 4년간 매년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고, 연중 진행되는 리더십 함양을 위한 유스 리더십 캠프, 개인 역량 강화 세미나, 멘토링 프로그램,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에 참가하게 된다. 우수 활동자에게는 인턴십, 스타벅스 글로벌 체험 등의 기회가 제공되고, 졸업 후에는 스타벅스커피코리아 특별 채용 기회도 제공된다.

한편 스타벅스 커뮤니티스토어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와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커피, 음료, 푸드, 텀블러 등 고객이 매장에서 구매하는 모든 품목당 300원을 적립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새로운 개념의 사회공헌모델이다. 조성된 기금은 분기별로 N GO 파트너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된다. 올 1월에 기금 3000여만원이 전달될 바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렉서스 4륜구동 가솔린터보 ‘NX 200t’ 출시**



렉서스는 26일 4륜구동 가솔린 터보 ‘NX 200t’(사진)를 공식 출시했다. (판매는 3월3일부터) 지난해 10월 출시돼 호평 받고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인 ‘NX 300h’의 퍼포먼스 모델. 스포츠 드라이빙 성능을 강조한 제품인 만큼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엔진이다. 렉서스에서 새롭게 개발한 2.0리터 다운사이징 가솔린 터보엔진이 장착됐다. 여기에 다이나믹 토크 컨트롤 4륜구동 시스템을 장착해 동급 최강의 퍼포먼스를 발휘한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트위터@simss23

**‘해외에서 온 그대’를 위해...쁘띠 프랑스 마케팅 강화**

지난해 외국인관광객 개별여행객만 10만명 올리는 전시 프로그램 강화·ITX 할인권도

지난해 한국방문위원회 홈페이지의 외국인 대상 온라인 할인쿠폰에서 가장 많은 다운로드를 기록한 곳은 서울의 대형 면세점이나 ‘케이 뷰티’를 대표하는 인기 화장품 매장이 아니었다. 외국인 관광객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곳은 경기도 가평의 프랑스 테마파크 ‘쁘띠 프랑스’였다. 한국방문위원회의 할인쿠폰 다운로드 상위 10위 중 관광명소는 썬디 프랑스가 유일했다.

쁘띠 프랑스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촬영지 덕분에 유명해졌다. 하지만 이제는 드라마 인기와 함께 한국 여행에서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필수 코스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이곳을 방문한 방문객은 60만명. 이중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객이 아닌 개별 자유여행객(ITI)이 10만명이 넘는다. 관광버스를 타고 편하게 오는 단체관광객과 달리 혼자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는 수고를 마다하지



가평 썬디 프랑스는 파스텔 색상의 이국적인 예쁜 건물들(왼쪽)과 청명호수를 바라다보는 풍광이 매력적이다. 사진제공 | 썬디 프랑스

않은 적극적인 방문객인 개별자유여행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충성도가 높다는 반증이다. 썬디 프랑스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재방문 의사가 65%였고, 지인에게 추천하고 싶다는 의사는 86%에 달했다.

쁘띠 프랑스는 올해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시설과 공연, 전시 프로그램도 보강할 계획이다. 개별여행자 비율이 높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대상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해외 관광박람회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 홈페이지의 영어, 중국어, 일본어 사이트를 개편하고 페이스북, 웨이보와 연동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개별자유여행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 코레일과 제휴해 ITX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입장권 할인도 연중 실시한다. 또 유럽 엔틱 여행을 전시하는 ‘유럽인형의 집’을 새로 단장하고 드라마 촬영지, 갤러리, 오르골 전시장을 추가로 조성해 여름 오픈할 계획이다. 김재범 전문기자

**대명레저, 8년 연속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대명레저산업이 8년 연속 ‘2015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콘도미니엄 산업 부문에서 1위로 선정됐다. 이번 조사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산업계 간부 6400명, 증권사 애널리스트 230명, 일반소비자 4560명 등 총 1만11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신세계조선호텔 희망전통지킴이 업무협약**

신세계조선호텔은 국립전통예술고와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희망전통지킴이 업무협약’을 27일 오전 11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툴룸에서 갖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화를 계승하는 청소년 18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한류문화 전파를 위해 본교에서 진행되는 한류축제행사비를 지원한다.

**시민단체, 개인정보 불법활용 SKT 고발**

희망연대노조와 참여연대 등은 26일 SK텔레콤이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활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또 같은 내용으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 단체는 “SK텔레콤 등의 고객센터는 폐기했어야 할 고객정보를 직원 휴게실이나 창고 등에 장기간 보관했다”고 주장했다.